


영국 크리에이터 애니시 커푸어+토머스 헤더윅, 서울을 수놓다

October , 2016



Exhibition
영국 크리에이터 애니시 커푸어+토머스 헤더윅, 서울을 수놓다

다문화적 개성을 바탕으로 창의 산업의 대표 주자로 두각을 드러낸 영국의 창조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열려 주목된다. 그중 하나는 생존 작가로 현대미술의 가장 반열에 오른 애니시 커푸어 개인전 <Gathering Clouds>.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이 전시에서는 기하학적 형태와 반사되는 표면의 결합이 인상적인 신작인 '트위스트' 시리즈를 비롯해 19점을 감상할 수 있다. 인도 뭄바이 출신이지만 1973년 영국으로 이주한 그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영국 대표 작가로 참여하고 권위 높은 테너상을 받았으며 런던올림픽을 기념하는 조형물을 만드는 등 주로 영국을 무대로 활동해온 세계적인 스타 작가다. 인도와 유럽의 정체성을 동시에 보유해 명상적이면서도 단순미가 돋보이는 추상 조각의 대표 주자다. 손에 잡히는 물성을 활용해 비정형의 작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정산적인 사유를 담아내는 그의 예술 언어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서울 한남동 다뮤지엄에서 상항리에 열리고 있는 <헤더윅 스튜디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상>의 주인공인 토머스 헤더윅도 영국이 자랑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다. 런던 패딩턴의 명물로 다리가 둥글게 구부러지면서 팔각형 원통 모양이 되는 '롤링 브리지', 14만 개가 넘는 유리구슬을 동원한 설치 작품 '블라이그센', 25만 개 씨앗을 담은 6만6천 개 투명 막대를 활용해 씨앗 대상으로 불린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영국관 등 다양한 작품으로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린다. <스타일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영국 크리에이터들과의 심층 인터뷰 시리즈 '디코딩 UK 크리에이티브티(Decoding UK Creativity)'에서 2009년 국내 독자들에게는 처음으로 심도 있게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7년이 흐른 지금, 유럽 뿐 아니라 아시아까지 아우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 헤더윅의 다채로운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이 전시는 10월 23일까지다.